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26 년 9 월 21 일 오후 10 시 54 분(현지 시간),
브라질 카시아스 두 술의 폼페이아 병원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
마리아 안토니아 브루스톨린 수녀님께서서
83 세의 나이로(수도생활 63 년)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교회가 사도이며 복음사가인 성 마태오 사도의 축일을 지내는 바로 그날, 선한 목자께서는 자신의 여정에서 만난 모든 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충실하고 기쁨에 찬 빠스도렐라로서 사신 안토니아 수녀님을 당신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안토니아 수녀는 1943 년 8 월 16 일 브라질 히우그란지 두 술 파루필랴에서 태어났으며, 1943 년 8 월 29 일 고향의 성 마르코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9 년 3 월 3 일 수도회에 입회하였고, 1962 년 2 월 1 일 카시아스 두 술의 성 레오폴도에서 수련기에 들어갔습니다. 1963 년 2 월 2 일 첫 서원을 발하며 수도생활을 시작했고, 1968 년 2 월 2 일 같은 카시아스 두 술 성 레오폴도에서 종신서원을 받았습니다.

첫 서원을 한 직후, 안토니아 수녀는 파군데스 바렐라(Fagundes Varela)로 파견되어 교리교육과 전례 봉사소임을 맡았다. 1965 년에는 상파울루의 'Divina Pastora' 수도원으로 파견되어 1970 년까지 머물렀으며, 다양한 사목 활동과 더불어 우리 수도회의 젊은 성소자들의 양성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1970 년부터 1975 년까지는 상파울루의 자르딩(Jardim)에서 사목 사도직을 하면서, 특히 성소자 발굴과 지원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1976 년부터 1980 년까지는 카시아스 두 술에서 지, 청원자와 수련자들의 양성을 맡았습니다.

1980년부터 1983년까지 로마에서 영성신학을 공부했으며, 이 기간 동안 트라베르사리에 있는 국제학생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했습니다. 1983년 브라질 카시아스 두 술로 돌아온 후, 포르투알레그리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1992년까지 교회와 수도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를 수행하면서 사목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안토니아 수녀님은 '만민을 위한 선교사'로서의 첫번째 부르심을 1993년에서 1995년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수련장으로 받았습니다. 이 후 브라질로 돌아와 여러가지 사도직 활동에 참여한 후 2001년 한국의 서울에 수련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브라질로 돌아온 후 수녀님은 여러 공동체에서 사도직과 교회, 수도생활과 수도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2002년 캄포 그란데, 2012년 카시아스 두 술 코합, 2015년 산타나 두 리브라멘투 2020년 캄포 그란데, 2022년 카시아스 두 술 무염시대, 2023년 카시아스 두 술 제 3 레구아. 안토니아 수녀님은 여러시기에 걸쳐 세차레의 관구 평의원으로 관대하게 봉사했습니다. 수녀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한 돌봄을 받기 위하여 2026년 초 카시아스 두 술의 베타니아 공동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 동안 안토니아 수녀님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수녀님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와 보살핌을 제공 해 주신 수녀님들과 외부 의료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토니아 수녀님과 함께 공동체생활과 사명을 나누었던 수녀님들은 안토니아 수녀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 깊은 영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기쁘고 너그러웠습니다. 강한 개성과 확고한 의지, 조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수도회, 그리고 창립자를 깊이 사랑하여 창립자의 저술을 번역하는 일에도 많은 협력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안토니아 수녀님을 알고 지냈던 수녀님들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언어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보여주신 안토니아 수녀님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녀님은 겸손하고 매우 따뜻한 분이셨으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셨고, 결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피하거나 물려서지 않으셨습니다.”

안토니아 수녀님께 수련을 받은 자매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수녀님은 내적으로 매우 강인하고, 영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분이셨습니다. 밝고, 활기차며, 창의적이고, 진실하며 , 구김이 없으며, 넓은 안목을 지니고, 양성에 있어서 친밀하면서도 존중과 섬세함을 지녔고, 사목적 열정 안에서도 세심했으며, 공동체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고, 특히 가난한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질병 앞에서 수녀님은 " 예수님은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며 믿음으로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토니아 수녀님, 기쁘고, 기도하며, 너그럽고, 내어주는 봉헌생활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토니아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수녀님의 삶과 성소에 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성중에 있는 젊은이들이 성소에 충실할 수 있고, 사제성소와 수도성소를 위해 수녀님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총 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2026 년 9 월 21 일, 로마

성 마태오 복음사가